

김남길 “섬세한 연기에 대한 목마름 있었다”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에 출연하는 김남길(오른쪽)과 진선규.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출연
국내 1호 프로파일러 이야기
SBS 오늘 밤 10시 첫 방송

‘악(惡)이라 불리는 자들의 속내를 치열하게 들여다보아야 하는 프로파일러 이야기기 안방극장을 찾는다.

SBS TV 새 금토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최근 온라인 제작발표회를 열고 14일 밤 10시 첫 방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동국대 겸임교수가 실화를 바탕으로 집필한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심리 분석을 통한 범인추적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되고 수사의 한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그린다.

유쾌한 다크히어로극으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열혈사제’ 이후 3년 만에 안방에 복귀한 배우 김남길(41)은 “섬세한 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고 출연 계기를 밝혔다.

대한민국 1세대 프로파일러 송하영 역을 맡은 그는 “그러면 안 되지만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고 변화를 일으켜 집중하다 보니 악의 마음이 이해되기도 했다”며 “그런 감정에 동요하지 않고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송하영의 모델이 된 권일용 교수에 대해서는 “외관상으로는 무뎠고 무서울 것 같은데 굉장히 밝아서 그런 반전 매력에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수님이 젊으셨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싱크로율이) 100%라고 생각한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현장에서 당시의 시대상이나 직업적인 고충 등을 직접 얘기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경찰 조직에서 새로운 시도에 도전하는 범죄행동분석팀장 국

영수 역을 맡은 진선규(45)는 “대본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다”며 “이제껏 많은 드라마가 프로파일러라는 직업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지만, 그 직업군이 생기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흥미로웠다”고 작품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이번 작품으로 지상파 드라마 첫 주연을 꿰찬 그는 시청률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면서 “숫자상으로 표현되는 시청률도 중요하겠지만, 남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잘 만들어진 드라마여서 시청자분들도 잘 봐주시길 바랄 뿐”이라고 웃었다.

기동수사대 팀장 윤태구 역을 맡은 김소진(43)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그 시절 여자 형사로서 겪어야 했던 많은 견제와 편견 속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은, 단단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연기이지만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불편하고 무서웠다”면서도 “작업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이것을 같이 하는 과정이 굉장히 가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 내 참여했다”고 말했다.

박영수 총괄 프로듀서는 “원작 도서를 3년 전 처음 접했는데, 혁신적인 방법으로 흉악 범죄를 막고자 노력하는 분들의 강인한 의지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며 “원작이 가진 힘을 드라마에 담고 싶었다”고 제작 계기를 밝혔다.

국내 최초의 프로파일러들이 마주한 당시 현실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잘 담아내고 싶었다는 그는 “다만 시간이 흘러도 범죄의 상처와 아픔이 지워지지 않는 분들이 계신 만큼 범죄 현장과 희생자를 그리고는 부연이 있어서는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접근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남길은 “지금 시대에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면서 해소해야 하는 이야기이고 의미 있는 작품”이라며 “(범죄자) 한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 간의 이해와 배려, 관심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뷰티풀 마인드’ 가수 KCM 9세 연하 연인과 결혼

가수 KCM(본명 강창모·사진)이 9세 연하 연인과 결혼했다.



소속사 이미지나인컴즈는 13일 “KCM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며 “최근 양가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축복 속에 연약식을 했으며 혼인신고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상대는 9세 연하의 회사원이라고 소속사는 전했다.

소속사는 “KCM은 지난해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식을 포함한 준비를 해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가피하게 예식이 여러 차례 연기되며 발표도 미뤄지게 됐다”고 양해를 구했다.

두 사람은 추후 상황을 보며 결혼식을 준비할 예정이다.

소속사는 “KCM 부부는 홀어머니를 모시기로 하고 경기도 김포에 세 식구가 함께할 보금자리를 마련했으며 3월 중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일정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많은분의 축하를 받고 한 분 한 분 대면해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결혼식 자리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KCM은 이날 팬카페에 직접 쓴 편지를 올려 “지난해 저의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한 친구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며 “팬분들께 가장 먼저 축하받고 싶다”고 전했다.

KCM은 섬세한 감성과 허스키한 목소리로 잘 알려진 가수다. 2004년 1집 앨범 ‘뷰티풀 마인드’로 정식 데뷔한 뒤 ‘흑백사진’, ‘은영이에게’, ‘버터처럼 셋을 쏜다’ 등 히트곡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설연휴 해적·의적들의 판타지 어드벤처 극장가 찾는다

영화 ‘해적: 도깨비깃발’ 26일 개봉

이번엔 고래가 아니라 고려의 보물이다. 고래가 삼킨 조선의 국새를 찾으려는 해적 이야기로 866만 명의 관객에게 웃음을 안겼던 ‘해적: 바다로 간 산적’ (2014)에 이어 또 다른 해적들이 나오는 영화 ‘해적: 도깨비깃발’이 극장을 찾는다.

바다를 무대로 한 도둑들의 모험이라는 큰 틀은 같지만, 전혀 다른 인물과 스토리로 전개된다. 조선 건국 초기 옛 고려의 신하들이 숨겨 놓은 보물을 찾아 나선 해적과 의적, 역적의 모험을 판타지 요소를 잔뜩 가미해 유쾌하게 풀어냈다. ‘찌꺼한 로 맨스’, ‘탈정: 더 비기닝’ 등 코미디 영화를 선보인 김정훈 감독이 연출했다.

의적단 두목 무치(강하늘 분)는 관군에 쫓겨 바다를 표류하다가 해적단 단주 해랑(한효주) 덕에 목숨을 건진다. 두 사람은 바다에서 만난 왜구로부터 보물의 존재에 대해 들은 뒤 위험천만 모험을 함께하기로 한다. 두목 자리를 놓고 티격태격하거나 배신하는 과정을 겪기도 하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를 넘어 우정과 사랑이 싹튼다.

그러나 보물을 노리는 것은 이들뿐만이 아니다. 무치와 악연이 깊은 역적 부흥수(권상우) 역시 이방원으로부터 제주의 왕



영화 ‘해적: 도깨비깃발’

자리를 약속받고 보물을 찾아주기로 한 상황이다. 탁월한 검술 실력을 갖춘 그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부하까지 서슴없이 죽이는 인물이다. 대포를 장착한 큰 배를 몰고 무치와 해랑 일행을 바짝 따라붙으며 이들을 위협한다.

영화는 할리우드의 ‘캐리비안의 해적’처럼 신비하고 초현실적인 요소로 가득하다. 특히 해적 일당들이 바닷속 급류를 타고

해파리와 물고기 떼 사이를 뚫고 가는 장면이 장관이다. 365일 배라이 치는 섬, 해적선을 덮치는 거대한 쓰나미, 바다를 뚫고 솟구치는 사별건 불기둥 등도 실감 나게 그려졌다. 컴퓨터그래픽(CG)과 시각특수효과(VFX)를 활용해 빼어난 영상미를 완성했다.

배우들의 액션 연기도 시원스럽다. 자칭 고래 제일 겁인 무치와 그의 라이벌인 부흥수가 내리치는 천둥을 피해 좁은 공간에서 펼치는 검술 대결이 하이라이트다. 해랑은 여자 단주지만, 남자들 못지않은 싸움 실력으로 적들을 단번에 제압한다. 한효주는 액션 연기를 위해 석 달간 검술 등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코미디 요소도 적재적소에 삽입해 극 분위기를 익살스럽게 유지한다. 주인공뿐만 아니라 단주 자리를 노리지만 허술하기 짝이 없는 막이(이광수)도 큰 웃음을 준다. 틈만 나면 배신을 일삼지만 믿지 않은 캐릭터로, 우연히 만난 펭귄 떼와 기가 막힌 호흡을 보여주기도 한다.

무엇보다 새해를 여는 첫 대작 한국 영화라는 점이 반갑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한 작품들이 개봉을 망설이는 와중에 ‘해적: 도깨비깃발’이 첫 타자로 나섰다. 설 연휴에 맞춰 개봉 일정을 정해 가족 단위 관객들을 제대로 겨냥했다. 오는 26일 개봉. 상영시간 126분. 12세 관람가. /연합뉴스

스타들의 가족을 추리한다

SBS ‘판타스틱 패밀리’ 설 특집 방송



SBS TV ‘판타스틱 패밀리’의 (왼쪽부터) 주영훈, 장도연, 이현이, 양세찬.

SBS TV는 예능 ‘판타스틱 듀오’를 잇는 ‘판타스틱 패밀리’를 설 특집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2부작으로 방송될 ‘판타스틱 패밀리’는 얼굴과 목소리만을 단서로 참가자가 어떤 스타의 가족인지를 추리하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다. 첫 방송은 내달 1일이다.

방송에서는 참가자들의 남다른 끼와 실력 외에도 스타와 함께 꾸미는 무대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타임 오리진일 예능 ‘여고 추리단’ 시리즈에서 남다른 추리력을 드러낸 개그우먼 장도연을 비롯해 개그맨 양세찬, 모델 이현이, 프로듀서 주영훈 등이 출연한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하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